

## 한국 대형교회 복지사역의 현황 및 발전적 역할 모색\*

양혜원\*\*

김희수\*\*\*

### 논문초록

본 연구는 한국교회 복지사역의 현실을 진단하고, 향후 대형교회가 한국교회 복지사역 발전을 위해 해야 할 바람직한 역할을 모색하고자 이루어졌다. 이를 위하여 한국교회 복지사역의 전반적 현황 및 대형교회 복지사역의 특성을 살펴보고, 대표적인 10개 대형교회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대형교회 복지사역의 현황을 파악하였으며, 관련 전문가 7명과 초점집단면접을 실시하여 그 내용을 분석하였다. 초점집단면접의 결과, ‘한국교회 복지사역의 현실’ 영역에서 ‘맥락’, ‘인식’, ‘수준’의 3개 범주, 총 7개 개념이 도출되었고, ‘대형교회 복지사역의 역할’ 영역에서 ‘토대 구축’, ‘교회에 대한 기여’, ‘사회에 대한 기여’의 3개 범주, 총 6개 개념이 도출되었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한국교회 복지사역 발전을 위하여 대형교회가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어떻게 기여해야 할지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제어: 대형교회, 교회 복지사역, 복지사역 현황, 대형교회 복지사역의 역할, 초점집단면접

---

\* 본 연구에서는 사랑의교회 용역과제로 수행된 “사랑의교회 복지사역 비전 및 발전방안 수립 연구”의 자료를 일부 활용하였음을 밝힌다.

\*\* 총신대학교 사회복지학 교수

\*\*\* 한국성서대학교 사회복지학 교수

2011년 8월 13일 접수, 9월 19일 수정, 9월 21일 게재확정.

## I. 서론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소외된 이웃을 돌보는 것이 교회와 기독교인의 본질적인 사명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한 칼빈은 이웃 사랑에 대한 명령이 관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육체적·물질적 필요에 실제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손병덕, 2004: 163), 교회와 기독교인이 구제와 사회봉사에 헌신할 것을 강조한 바 있다. 조선후기에 시작된 기독교의 선교는 바로 이러한 구제와 사회봉사에서 비롯되었다. 구한말과 6·25 전쟁을 거치면서 수많은 기독교 외원단체들이 들어와서 고아원, 병원, 학교를 세우고 자선사업과 구빈활동 중심의 사회봉사를 주도했다. 이후에도 이와 같은 기독교의 사회적 섬김은 지속되었으며, 한국의 사회복지가 제도로서 정비됨에 따라 기독교의 참여도 활발해졌다. 1999년 보건사회연구원원의 조사에 의하면 기독교, 천주교, 불교 등 3대 종교의 사회복지법인 중 기독교가 차지하는 비율이 75.6%로 압도적인 우위를 보였으며, 문화체육관광부의 ‘2008 한국의 종교현황’에서는 종교단체 관련 사회복지 주요 법인 372개 중 기독교 관련 법인이 194개로 절반이 넘는 52.15%를 차지하고 있다(문화체육관광부, 2009: 132).

이렇듯 기독교 혹은 교회가 주체가 된 사회복지활동이 양적으로는 타종교에 비해 우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한국교회의 외형적 성장과 재정적 여력에 비해 많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김지찬(2007: 25)은 한국교회가 비축한 재원에 대한 사회적 환원이 미흡하다고 언급하였다. 실제로 이만식(2007: 812)의 조사에서 한국교회의 평균 구제 및 사회봉사 비용은 전체 예산의 10.6%로 나타났는데, 이는 미국 교회의 약 70%, 캐나다교회의 1/2 수준에 불과한 수치이다<sup>1)</sup>.

또한 2000년 이후 한국교회의 성장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전국적으로 교회의 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전체 기독교인의 수가 감소하면서 전체 교회의 90% 이상이 소형 교회임을 알 수 있다<sup>2)</sup>. 소규모 교회는 교인들 간에 친밀감이 높은 공동체로서 기능하

1) 미국교회의 구제 및 사회봉사 비용은 평균 15%, 캐나다교회는 평균 21%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Lindner, 2000: 361).

2) 1995년 전체 인구 4460만명 가운데 19.6%인 876만명이 기독교인이었던데 비해 2005년에는 전체인구 4727만명 중 18.2%인 862만명이 기독교인으로 14만명 감소하였다. 그런데 교회 수는 2000년 43,443개에서 2007년 52,905개로 증가하였으며, 이들 교회 가운데 종사자 1~4명의 소형교회는 2000년에 전체 교회의 91.98%, 2006년에 92.89%로 나타났다(국민일보, 2008. 12. 9.).

며, 지역사회 밀착형 목회가 가능하다는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적은 교인 수에 기인한 낮은 재정자립도로 인해 교회는 물론 목회자의 생존을 어렵게 하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은 교회 복지사역이 양질의 내용을 담는 활동으로 전개되는데 있어서 한계로 작용한다. 특히 최근에는 영세한 교회들이 사회복지에 참여하면서 교회가 운영하는 복지시설의 재정 부족 문제가 심각하게 논의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지역아동센터를 들 수 있다. 전국 3,000개 이상의 지역아동센터 가운데 절반 이상을 교회 혹은 기독교계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재정자립도가 낮은 교회가 소액의 정부보조금을 받아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서 열악한 환경에서 질 낮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손병덕, 2010: 110-111).

그러나 동시에 우리 사회에는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한국 기독교의 급속한 성장세 속에서 형성된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대형교회들이 병존하고 있다. 대형교회의 출현은 성령운동은 물론 우리나라의 경제발전 및 계획된 지역 개발에 따른 자원의 이동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으며, 특히 교회가 대형화되면서 각종 인적·물적 자원이 교회로 집중되었다. 따라서 풍부한 재정과 인적자원을 바탕으로 교회 복지사역을 적극적으로 선도하고 있는 것이 또한 대형교회들이다. 이들 대형교회들은 전체 교회에서 차지하는 수치는 적지만 그 규모로 인해 교단 내는 물론 대사회적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 각 분야를 아우르는 전문적인 인적 자원과 풍부한 물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강점을 가진다. 대형교회의 이러한 강점은 지속적인 자원의 공급과 전문적인 체계를 구축할 때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복지사역을 감당하는 데에도 긍정적이다. 대형교회 복지사역의 중요성은 최근 미국에서도 강조되고 있는 현상이다. 미국의 대형교회들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사역분야를 재조정하면서 구제사역에 재정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크리스천투데이, 2010. 12. 14.).

그런데 이러한 대형교회가 가지는 복지사역 수행을 위한 잠재력에 비해 관련 연구는 매우 드문 실정이다. 소수의 연구에서 교회의 규모나 특성에 따라 복지사역의 형태를 유형화하면서 대형교회의 복지사역에 대해 포함하여 논의하고 있을 뿐이다(박창우, 2008; 노치준, 2000; 박종삼, 2000). 따라서 대형교회를 중심으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복지사역 현황을 살펴보고 대형교회가 감당해야할 역할을 규명하는 작업은 대형교회가 대사회적으로 기여하고 대다수의 소형교회들이 복지사역을 하면서 감당해야하는 한계점을 극복하도록 돕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하는 기초 작업이 될 것으로 기대

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및 대표적 대형교회의 홈페이지 고찰, 그리고 교회 복지사업 관련 전문가들과의 초점집단면접(focus group interview) 분석을 통해서 한국교회 전반 및 대형교회 복지사업의 현황을 파악하고, 그러한 현실 속에서 대형교회가 교회 복지사업의 발전을 위해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모색하고자 하였다.

## II. 이론적 배경

### 1. 교회 복지사업의 성경적 근거

교회 복지사업의 성경적 근거는 신·구약 성경에 나타난 사회복지의 이념적·실천적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사회복지’라는 용어는 20세기 후반에 등장하였지만 사회생활상의 곤란이나 장애를 가진 자를 포함한 모든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보장한다(박종삼 외, 2002: 25-28)는 의미에서 볼 때 성경 전체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사회복지실천이 기독교인의 본질적 사명이자 교회의 본질적 기능이라는 사실은 구약성경 전체를 통해 드러난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모세의 율법에서 사회복지의 기본적 토대를 찾을 수 있고,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등에는 사회복지의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모습이 제시되어있다. 특히 구약에서는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경제적으로 기반이 없는 약자, 즉 나그네, 과부, 고아, 가난한 자, 노예 등을 보호할 것을 강조하였다(최완석, 2004: 14). 출애굽기 22: 21-24에서는 나그네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고, 고아나 과부를 해롭게 하지 말라고 하였으며, 21: 2-11에서는 노예에게 자유를 주고 가족의 생계를 보장하며 결혼에 있어서도 인간적으로 대접하라고 하였다. 신명기 14: 28-29에서는 나그네, 고아, 과부를 배불리 먹이도록 명하였고, 레위기 19: 9-10, 신명기 24: 19-21에서는 나그네, 고아, 과부,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밭이나 나무로부터 얻은 소산물을 남겨두라고 하였다. 또한 출애굽기 23: 10-13, 레위기 25장, 신명기 15: 1-11에서는 안식년과 희년의 규례를 통해 제도적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자유와 경제권의 회복을 실현하도록 하였다. 이 외에도 아모스, 예레미야, 이사야, 호세아 등의 선지서에서 선지자들은 사회적 약자의 편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고 이들에 대한 지도층의 무관심과 불의를 고발함으로써 소외계층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최완석, 2004: 19-20).

구약에 나타난 사회복지의 이념적·실천적 내용은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어진다. 예수 그리스도는 마태복음 22: 37-39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계명을 선포하면서 구약의 모세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을 재확인시켰다. 특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무조건적이고 자기희생이 강조된 것(전광현 외, 2005: 58)으로 오늘날의 사회복지활동이 기독교인과 교회가 마땅히 행해야 할 바임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신약에서는 ‘디아코니아(diakonia)’, 즉 ‘사회봉사’라는 용어를 통해 이웃에 대한 사랑과 섬김의 실천을 표현하는데, 디아코니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보기로 어려운 이웃을 돕는 사랑의 행위를 의미한다(박신경, 2001, 최완석, 2004: 21에서 재인용). 초대교회는 디아코니아의 실천을 위하여 디아코노스(diakonos, 집사)를 택하여 구체활동에 전념하게 하였는데, 이는 사회봉사를 기도와 전도로부터 구별하여 전문화시킨 것으로, 현대적 의미의 교회 내 사회복지전문가의 기원으로 볼 수 있다(양혜원, 2008: 153).

신약성경에 나타난 사회복지의 실천적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복음서 곳곳에서 드러난다. 예수 그리스도는 가난한 자들을 긍휼히 여길 것(마태복음 5: 7), 구하는 자의 청하는 대로 주며 거절하지 말 것(마태복음 5: 42), 가난한 자들의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은밀하게 구제할 것(마태복음 6: 1-4)을 가르쳤다. 특히, 마태복음 25: 31-46에서는 주리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고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힌 지극히 작은 한 사람에게 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 한 것이라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결국 이웃 섬김의 형태로 나타나야 함을 가르치고 있다(양혜원, 2008: 154).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가르침은 제자들에게도 이어져서, 누가는 사도행전 2: 44-47에서 초대교회 내에서 물건을 서로 통용하며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는 삶을 통해 교회공동체가 신앙적으로 뿐 아니라 물질적·경제적으로도 나눔의 공동체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바울 역시 로마서 13: 9-10에서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계명을 언급하며 이웃 사랑이 율법의 완성임을 가르치고 있다.

이처럼 성경은 구약과 신약 전체를 통해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에 대한 구제와 돌봄의 실천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웃 사랑의 실천으로서 구제와 봉사는 기독교인과 교회공동체가 수행해야 할 본질적 사명임을 보여주고 있다. 즉, 오늘날 복지사업은 교회가 감당해야 할 본질적 사명 가운데 하나인 것이다.

## 2. 교회 복지사업의 현황

우리나라 교회의 구제 및 사회봉사는 19세기 말부터 21세기 초에 이르기까지 시대적 요청과 환경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어 왔다. 지금도 기독교와 교회는 여전히 우리나라 사회복지 영역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문화체육관광부(2009)의 조사에서 종교단체 관련 사회복지 주요 법인 중 기독교 법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절반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독교윤리실천운동(2010: 7, 10, 17)의 2009년 조사에서는 전국의 종합사회복지관 414개 중 45%인 188개, 지역아동센터 3,013개 중 53.13%인 1,601개, 해외원조단체 47개 중 36%인 17개를 교회나 기독교 관련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수치는 사회복지 분야에서 기독교계가 여전히 양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교회 사회복지활동의 내용적·질적 측면에 대해서는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점차 강해지고 있는 것이 최근의 현실이다.

먼저, 복지사업에 대한 한국교회의 인식에 대해 살펴보면, 대다수 선행연구 결과는 한국교회가 복지사업이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 중 하나라는 사실에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컨대, 김미숙 외(1999: 68)의 조사에 따르면 교역자의 85.9%가 사회복지활동을 교회의 본질적 사명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김청호(2001: 17)는 조사 대상 교역자의 88.9%가 지역사회복지에 참여하는 일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문화규(2007: 38)는 93.7%가 복지사업을 교회의 본질적 사명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한국교회의 복지사업에 대한 실질적인 참여 수준은 이러한 인식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이만식(2007: 800)이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에 가입된 13개 교단의 680개 교회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사회복지활동이 활발한 정도에 대해서 알아 본 결과, 한국교회 전체에 대해서는 27.8%, 소속 교회에 대해서는 35.4%만이 사회복지활동이 활발한 편이라고 응답하였다. 김청호(2001: 17)의 연구에서도 교회가 복지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응답은 29%에 불과했다. 문화규(2007: 38-39)의 연구에서는 교인들의 사회복지활동에 대한 관심도가 낮은 편이고 복지사업을 위해 별도의 조직을 마련하는데 대해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김기원(2003: 92)은 한국 기독교계가 사회복지에 적극적이지 못한 이유는 바로 “선성장-후복

지”라는 논리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현장의 기독교 사회복지사들이 일부 교회가 등록을 전제로 경제적 지원을 하는 식으로 사회복지를 직접적인 전도와 교회 성장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에 매우 비판적이라는 보고도 있었다(김희수·양혜원, 2008: 131). 한국교회는 당위적인 차원에서는 복지사역이 교회의 본질적 사명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교회의 양적 성장을 우선시하는 것이 현실이며,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교회의 복지사역에 대한 ‘인식’과 ‘실제’ 사이에는 상당히 큰 간극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교회가 복지사역에 투입하는 재정은 다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다. 한국자원봉사능력개발연구회(1990: 109)의 조사에서 교회 전체 예산 중 사회봉사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평균 7.02%였으나 이만식(2007: 812)의 조사에서는 2005년 결산액을 기준으로 평균 10.6%로 다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서구 교회들에 비해서는 여전히 매우 낮은 수준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교회 복지사역 예산은 미국교회의 약 절반, 캐나다교회의 약 1/3 수준에 불과하다. 또한 우리나라 교회와 기독교계는 사회복지시설에 부담하는 지원금이 적은 편이다. 종교계의 사회복지시설 지원금 실태를 분석한 고경환(2006: 71)의 연구 결과, 조사대상 시설 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기독교 47.2%, 천주교 23.8%, 불교 21.2%의 순이지만, 전체 종교계 지원금에서 차지하는 종단별 지원금의 비율은 천주교 47.3%, 기독교 28.7%, 불교 16.5%의 순서로 나타났다(2003년 기준). 시설 수가 월등하게 많은 기독교의 지원금이 천주교에 비해 크게 적은 것이다. 특히 종교계의 사회복지시설 지원은 시설 간 편중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독교계 역시 예외가 아니어서 연간 5백만원 미만을 지원받는 시설과 5천만원 이상을 지원받는 시설이 각각 30.2%이다. 즉 지원금에 대한 상하위시설 간 격차가 10배 이상 발생하는 것이다.

한국교회의 복지사역은 전문성에 있어서 매우 취약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여 정부 지원을 받으며 공공복지의 성격을 띠고 사업을 수행하는 기독교계 복지기관들 중에는 일반 사회복지 실천방법론에 있어서는 탁월한 역량을 갖춘 경우도 드물지 않으나, 이러한 기관에서도 일반 사회복지와 구분되는 기독교 사회복지 실천방법론은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김희수·양혜원, 2008: 153). 교회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복지사역이나 개교회 혹은 개인이 운영하는 소규모 시설의 전문성은 더욱 떨어지는 실정이다. 박창우(2007: 110)는 한국교회의 사회복지 활동은 대부분 자원

봉사나 후원 등 비전문적인 활동이 주를 이루고 있고 교인들을 위한 사회복지 교육과 같은 기본적인 교육조차 실시되지 않고 있다고 하였다. 김수정(2004: 295) 역시 한국교회의 복지지역은 전반적으로 전문성이 부족하고 보유 자원의 정확한 규모나 적절한 활동 분야에 대한 파악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보았다. 이와 같은 전문성 부족의 주요 원인으로는 전문 인력의 부족을 들 수 있다. 김미숙 외(1999: 72)의 조사에서 사회복지전문가가 있는 교회는 8.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고, 비교적 최근에 이루어진 이만식(2007: 818)의 조사에서도 사회복지를 전담하는 유급직원이 있는 교회의 비율은 14.1%로 낮은 수준이었다.

교회 복지지역의 전문성에 영향을 미치는 보다 근본적인 한계는 교회 복지지역 혹은 기독교 사회복지실천의 학문적 토대가 취약하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기독교 사회복지학계는 기독교 사회복지에 대한 개념조차 제대로 정립하지 못하고 있고 체계적인 기독교 사회복지 실천이론이나 실천모델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박종삼, 2000: 12; 강춘근, 2004: 43, 2005: 13). 반면에 서구 기독교 사회복지계에서는 사회복지실천과 종교 및 영성을 통합하려는 학문적·실천적 노력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김희수·양혜원, 2008: 121-122; Modesto et al., 2006: 77). 일례로, 미국사회사업교육협회의(CSWE)는 이미 1994년에 발표한 교육과정 정책 성명(curriculum policy statement)에서 사회복지실천에서의 영성과 신앙의 중요성을 적극 반영하여, CSWE가 승인한 학부 및 석사 교육과정에는 영성 및 신앙에 관련된 과목을 포함시키도록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이러한 논의나 시도가 여전히 매우 초보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이다. 교회 복지지역의 전문성 수준은 정체된 반면, 일반 사회복지의 전문화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서 그 격차가 점차 더 크게 벌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 3. 한국 대형교회의 복지지역

#### (1) 한국 대형교회

한국 개신교회의 급격한 성장은 세계기독교 선교사에 있어서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현상이다.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의 한국의 경제성장과 더불어 개신교회의 급성장은 세계적으로 손꼽힐만한 대형교회의 출현으로 이어졌다. 대형교회라 함은 말 그대로

규모가 큰 교회를 지칭하는데, 교인 수, 재정규모, 종사자 수 등 학자들마다 여러 가지 기준을 적용한다. 홍영기(2002: 28)와 박창우(2008: 167)는 교인 수 1,000명을 기준으로 대형교회를 구분하였고, 노치준(2000: 200)은 701명 이상을 기준으로 하면서 연 예산 5억 이상, 전임직원 5명 이상으로 보았다. 한편, 국민일보 취재팀이 교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분류한 기준에서는 종사자 수(유·무급 포함) 10명 이상을 대형교회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2007년 말 현재 대형교회는 전체 52,905개 교회 가운데 1.81%인 961개이다(국민일보, 2008. 12. 9.).

대형교회의 등장은 한국교회의 특이한 현상이며, 이들 대형교회의 등장과 관련하여 종교사회학적으로는 ‘성령운동’으로, 사회학적으로는 1960, 70년대의 경제개발 및 현대주의, 그리고 중산층이라는 사회경제적 계층의 동질성으로 설명하고 있다. ‘성령운동’에 의하면 당시 한국 사회의 급격한 산업화, 도시화, 분단과 권위주의 정권에 의한 정치적 불안정 등에 따라 개인이 경험하는 정체성 위기, 불안감, 상대적 박탈감이 성령운동을 통해 개인에게 새로운 정체성과 공동체를 제공하여 주었고, 주술성과 기복으로 한국인의 전통적 종교 심성에 부합하여 개신교에 대한 이질감을 해소함으로써(서우석 1993: 152-153에서 재인용) 한국교회의 급격한 성장과 대형교회의 등장을 가져올 수 있었다고 설명한다.

한편, 사회학적으로는 1960년대 서울의 도시화가 진행되고 이어 1970년대 강남지역의 개발과 더불어 강남으로의 인구 밀집과 특별히 대형교회에 필요한 자원이 밀집된 지역에서 개척된 교회들의 대형화 현상에 주목하면서 대형화를 지향하는 현대주의의 영향, 경제력을 갖춘 도시 중산층의 동질적 공동체 형성에 따라 한국의 대형교회가 등장할 수 있었다고 보았다. 특히 이항순과 이광순(2002: 61)은 대형교회로 성장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을 경제력에 두고 있는데, 대형교회로 성장하기 위한 초기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경제력 뿐 아니라, 중산층 이상의 교인들의 욕구에 부합할 수 있는 양질의 목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지속적인 비용 부담에 대한 경제력을 중요시하였다.

그러나 한국교회의 성장은 1980년대 들어서면서 서서히 둔화되기 시작하였고<sup>3)</sup>, 1995년 이후에는 몇몇 대형교회의 세습으로 대표되는 비윤리성 등으로 인하여 개신교

3) 1970년대 교인의 수가 3배 가까이 성장한 것에 비하여 80년대에는 46%의 성장률에 머물게 되고 1990~1996년 동안 0.3%의 성장, 그리고 1995년의 교인 수에 비해 2005년의 교인 수는 오히려 1.7% 감소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이상성, 2009: 185-186).

에 대한 전반적인 불신과 부정적 시각으로 확산되었다. 하지만 대형교회는 대사회적으로 보다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도움이 된다는 긍정적 견해도 존재한다(이상직, 1996: 18). 실제로 규모가 큰 교회들은 작은 규모의 교회들이 감당할 수 없는 재정 지출을 통해 한국교회의 대사회적인 활동과 선교 사업을 이끌고 있다(한국기독교공보, 5. 26.). 즉, 한국의 대형교회는 대다수의 중소형교회가 가지지 못한 풍부한 인적·물적 자원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복지사역을 감당하기에 적합한 조건이며, 또한 중소형교회를 지원한다든지, 혹은 대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있어서도 그 규모가 가지는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대형교회는 개교회 차원의 복지사역은 물론 한국교회 전체의 복지사역과 한국 사회복지의 측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 (2) 대형교회 복지사역 관련 선행연구

사회복지실천이 교회가 감당해야할 본질적 사명이기는 하나 교회마다 사회복지를 수행하는 형태는 다양하다. 특히 대형교회의 경우 보유 자원의 규모로 볼 때 중소형 교회와는 차별화된 형태의 복지사역을 감당할 수 있으리라고 추측된다. 그러나 대형교회의 복지사역을 집중적으로 연구한 기존의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교회 복지사역에 대해 유형화를 시도한 대표적인 연구들에서 대형교회에 해당하는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대형교회 복지사역에 대해 알아보았다.

교회의 복지사역에 대해 유형화를 시도한 대표적인 연구 가운데 박창우(2008)와 노치준(2000)의 경우는 연구자가 정한 기준에 따라 교회의 복지사역 유형을 정리하고 각 유형별로 어떤 형태의 복지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이 적절한지를 제안하고 있다고 하면, 박종삼(2000)의 경우는 교회의 복지사역에 대한 연구 및 관찰 결과를 토대로 유형을 구분하였다.

먼저 가장 최근의 연구로 박창우(2008: 167-183)는 복지성향 및 복지자원을 교회 사회복지실천의 결정요인으로 보고 적극/소극 복지성향과 대형(교인 수 1,000명 이상)/중형(교인 수 300~1,000명 이하)/소형(교인 수 300명 미만) 규모의 조합을 통해 복지사역 유형을 5개로 구분하고 각 유형에 따라 복지사역을 통해 목표하는 바, 대상 범위, 복지사역 수행 방법, 주요 사업 등에 있어서 서로 다른 실천 모형을 제안하고 있다.

이 가운데 본 연구의 주요 관심사인 대형교회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복지 성향이 적극적이면서 대형교회인 경우는 교회구성원이나 지역주민 이외에 광범위한 복지대상자를 염두에 두고 사회문제 및 지역의 복지욕구를 해소하는데 적극적인 관심을 두며, 사회복지기관과 연계한 사회봉사 및 후원활동, 사회복지 교육 실시 등 이외에도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고 사회복지사업을 위탁하는 형태로 복지사역을 수행하는 모형을 제안하고 있다. 이에 비해 대형교회이기는 하나 복지성향이 소극적인 경우는 교회 구성원과 지역주민을 염두에 두고 자원봉사활동이나 후원활동 정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로 교회 구성원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에 대한 의식 변화 교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것으로 제안하고 있다.

노치준(2000: 191-203)은 지역에 따라 농어촌교회와 도시교회로, 그리고 성인 교인수에 따라 소형(100명 이하), 중형(101명~700명 이하), 대형교회(701명 이상)로 구분하였다. 대형으로 구분되는 교회는 국가의 예산 지원을 받으면서 인가된 복지시설을 설립·운영할 수 있는 여력이 된다고 언급하면서 특별히 초대형교회의 경우에는 단순히 개교회 차원의 복지사역을 넘어서서 다른 교회의 복지사역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역할, 전문화된 복지사역의 영역을 확보하고 관심있는 다른 교회들과의 연합활동을 주도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감당하여야 함을 강조하였다.

박종삼(2000: 30)은 교회 복지사역에 대해 관찰한 결과에 따라 그 유형을 3가지로 구분하였는데 Model A는 교회가 복지재단을 설립하고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유형, Model B는 교회 건물을 중심으로 교회 자원을 동원하여 자원봉사 서비스를 지역 주민에게 제공하는 유형, Model C는 교회 자체적인 복지사역은 하지 않고 교인을 자원봉사자로 훈련시켜 지역사회 내 복지기관이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가정을 지원하는 유형으로 정리하였다.

### (3) 한국 대형교회 복지사역 현황

대형교회의 규모를 어느 정도로 규정하느냐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견해가 조금씩 다른데 선행연구를 보면 대체로 교인 수 1,000명 이상으로 보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대형교회는 지역적으로 볼 때 도심에 자리 잡은 유서 깊은 교회와 1980년대 강남의 아파트지역을 중심으로 성장한 교회, 강남 개발 이후 발전한 서울 외곽 강동지역의 교

회, 그리고 신도시인 분당지역의 교회로 나누어 볼 수 있다(이향순·이광순, 2002: 42). 본 연구에서는 위 두 기준에 의거하여 도심의 대형교회로 새문안교회·영락교회, 강남 지역의 대형교회로 소망교회·사랑의교회·온누리교회·여의도순복음교회·광림교회, 강동지역의 명성교회, 그리고 분당지역의 지구촌교회·분당우리교회 등 총 10개 교회의 복지사역에 대해 교회 홈페이지 내용을 중심으로 현황을 살펴보았다).

〈표1〉 한국 대형교회의 복지사역

교회 명칭	창립 시기	교단	복지사역 형태		주요사업	특이사항
새문안교회	1887. 9.	대한 예수교 장로회 (통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복지법인 설립 (1992년) 및 사회복지사업 위탁</li> </ul>	기관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인복지사업: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복지관) 운영</li> <li>• 지역사회복지사업 : 종합복지관 운영</li> <li>• 영유아보육사업 : 어린이집 운영(총 4개 기관)</li> </ul>	
				법인 직접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회 내 부서 설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년소녀가장 지원, 독거노인지원, 노숙자 지원, 사회복지기관 지원, 재해지역 지원, 호스피스 등</li> </ul>	* 전담목사 배치
영락교회	1945. 12.	대한 예수교 장로회 (통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복지법인 설립 (1957년) 및 사회복지사업 위탁</li> </ul>	기관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복지사업: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운영</li> <li>• 노인복지사업: 노인주거복지시설 (양로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주간보호서비스) 운영</li> <li>• 장애인복지사업: 장애인생활시설,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주간보호시설) 운영</li> </ul>	

4) 여기서는 각 대형교회들이 수행하고 있는 복지사역의 현황을 개략적으로 살피는 것에 초점을 두었으며, 그런 의미에서 교회 스스로가 자신들이 수행하고 있는 사업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자료인 홈페이지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하지만 홈페이지 내용만으로는 대형교회 복지사역에 대해 심층적인 분석을 시도하기에 한계가 있으므로 이후 보다 다양하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후속 연구를 제안하는 바이다.

교회 명칭	창립 시기	교단	복지사업 형태		주요사업	특이사항
영락교회	1945. 12.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복지법인 설립(1957년) 및 사회복지사업 위탁</li> </ul>	기관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부모가족복지사업 : 모자보호시설 운영</li> <li>• 영유아보육사업: 어린이집 운영(총 14개 기관)</li> </ul>	
				법인 직접사업	장학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회 내 부서 설치</li> </ul>		이·미용·목욕봉사, 가정복지봉사, 호스피스, 의료봉사, 방과후 대안학교, 자원봉사자학교, 사회봉사주일 진행(월1회 후원금 및 후원물품을 수집하고 필요한 물품을 나누고 바꿔쓰는 행복나눔터 진행) 등	
광림교회	1953.	기독교대한감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복지법인 설립(1987년) 및 사회복지사업 위탁</li> </ul>	기관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인복지사업: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운영</li> <li>• 지역사회복지사업 : 종합복지관 운영</li> <li>• 영유아보육사업 : 어린이집 운영(총 6개 기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회 내 부서 설치</li> </ul>		
여의도순복음교회	1958. 5.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복지법인 설립(1986년) 및 사회복지사업 위탁</li> </ul>	기관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복지사업 : 직업전문학교 운영</li> <li>• 노인복지사업: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단기보호센터) 운영</li> <li>• 영유아보육사업 : 선교원 운영(총 5개 기관)</li> </ul>	* 국제개발 NGO 기구 설립을 통해 국내 및 북한, 해외사업 수행
				법인 직접사업	아동양육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회 내 부서 설치</li> </ul>		소년소녀가장 지원, 후원사업, 집짓기 및 집수리 사업, 심장병 무료수술, 의료봉사, 호스피스 등

교회 명칭	창립 시기	교단	복지사역 형태		주요사업	특이사항
소망교회	1977. 10.	대한 예수교 장로회 (통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복지법인 설립 (2001년) 및 사회복지사업 위탁</li> </ul>	기관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인복지사업: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 운영</li> <li>• 장애인복지사업: 장애인생활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li> <li>• 영유아보육사업 : 어린이집 운영(총 4개 기관)</li> </ul>	
				법인 직접사업	해외사업(북한 및 해외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회 내 부서 설치</li> </ul>		사회복지기관 지원, 재난 및 수해 지역 봉사활동, 후원금 및 후원 물품 지원, 자원봉사자 교육 등	
사랑의교회	1978.7.	대한 예수교 장로회 (합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복지법인 설립 (1996년) 및 사회복지사업 위탁</li> </ul>	기관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인복지사업 :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li> <li>• 장애인복지사업: 장애인지역사회 재활시설(장애인복지관,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장애인주간보호 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li> <li>• 지역사회복지사업 : 종합복지관 운영</li> <li>• 정신보건사회복지사업: 정신장애인사회복지시설 운영</li> <li>• 영유아보육사업 : 어린이집 운영(총 10개 기관)</li> </ul>	* 한국 장애인 사역 연구소를 통해 국내 장애인 선교 관련 지도자 훈련, 교육자료 개발 연구 활동 등 수행
				법인 직접사업	자원봉사자 모집 및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회 내 부서 설치</li> </ul>		저소득 및 소외 청소년 지원, 무의탁노인 및 부랑인 지원, 독거노인 지원, 입양가정 지원, 이·미용서비스, 지역 내 기관과 연계한 자원봉사활동, 호스피스 등	* 전담목사 배치

교회 명칭	창립 시기	교단	복지사역 형태		주요사업	특이사항
명성교회	1980.7.	대한 예수교 장로회 (통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복지법인 설립 (2004년) 및 사회복지사업 위탁</li> </ul>	기관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복지사업: 지역아동센터 운영</li> <li>• 노인복지사업: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복지관)/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재가노인복지시설(단기보호서비스) 운영 (총 2개 기관)</li> </ul>	
				법인 직접사업	저소득가정 자립 지원, 지역 노인을 위한 무료급식사업, 한글교실, 의료진료, 이·미용서비스, 사회복지 관련 연구·출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회 내 부서 설치</li> </ul>	노숙자 지원 활동 등		
온누리교회	1985. 10.	대한 예수교 장로회 (통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복지법인 설립 (1999년) 및 사회복지사업 위탁</li> </ul>	기관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복지사업: 청소년쉼터 운영</li> <li>• 노인복지사업: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복지관) 운영</li> <li>• 장애인복지사업: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 및 노약자 저상 버스 운영(총 6개 기관)</li> </ul>	
				법인 직접사업	긴급구호사업, 자원봉사자 관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회 내 부서 설치</li> </ul>	소외된 이웃 및 열악한 사역지 지원, 중고물품 매장 운영 등		
지구촌교회	1994. 1.	기독교 한국 침례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복지법인 설립 (2002년) 및 사회복지사업 위탁</li> </ul>	기관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인복지사업: 노인주거복지 시설 (양로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노인복지관), 재가노인복지시설(주야간보호센터) 운영</li> <li>• 장애인복지사업: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li> <li>• 무한돌봄센터 운영(총 9개 기관)</li> </ul>	

교회 명칭	창립 시기	교단	복지사업 형태		주요사업	특이사항
지구촌교회	1994. 1.	기독교 한국 침례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복지법인 설립 (2002년) 및 사회복지사업 위탁</li> </ul>	법인 직접사업	결식아동 지원사업, 저소득가정 지원 사업, 결연후원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역 노인을 위한 무료급식사업, 긴급구호 지원사업, 지역사회네트워크 구축사업, 지역간담회, 새터민·이주근로자·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자원봉사자 개발 및 관리, 해외구호사업, 장학사업, 사회복지 프로그램 공모지원사업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회 내 부서 설치</li> </ul>	사회기관 연계 봉사활동, 긴급재난 구호활동, 자원봉사자 교육, 장학사업, 호스피스 등	
분당우리교회	2002. 5.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복지법인 설립 (2006년) 및 사회복지사업 위탁</li> </ul>	기관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복지사업: 지역아동센터 운영</li> <li>• 장애인복지사업: 장애인지역사회 재활시설(장애인복지관) 운영</li> <li>• 지역사회복지사업: 종합복지관, 아름다운가게 운영</li> <li>• 영유아보육사업: 어린이집 운영</li> <li>• 다문화가정센터 운영 (총 6개 기관)</li> </ul>	* 자원봉사 센터 운영
				법인 직접사업	아동결연후원사업, 청소년 장학사업, 어린이도서지원사업, 저소득 가정 위기 지원사업, 지역주민을 위한 절기행사, 자원봉사 교육 및 관리, 아동복지프로그램 공모 지원사업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회 내 부서 설치</li> </ul>	독거노인 지원, 저소득 청소년 지원, 결연사업, 이·미용서비스, 주거환경개선, 밑반찬 제공, 호스피스, 사회기관 연계 봉사활동, 노숙인 조식 지원 등	* 전담목사 배치	

<표1>의 내용을 보면 10개 대형교회는 모두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함으로써 법인을 통해 기관을 직접 혹은 위탁 운영하는 형태와 교회 내 복지사업 담당 부서를 두고 다양한 사회복지활동을 교회가 직접 진행하는 형태를 병행하고 있다. 복지사업 수행 인력의 경우 홈페이지 상에서 교회 내 복지사업 전담 목회자를 확인할 수 있는 곳은 5곳이었으며, 10개 교회 모두가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볼 때 유급 사회복지전문가를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업내용을 보면 편차가 있기는 하나 사회복지법인이 직접 혹은 위탁하여 사회복지기관을 운영하는 것과 동시에 대부분 법인 자체적으로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고 있었다. 10곳의 교회 가운데 특히 명성교회, 지구촌교회, 분당우리교회가 법인 자체 사업에도 비중을 두고 있으며, 소망교회의 경우는 법인 자체 사업으로 북한 및 해외 지원사업을, 여의도순복음교회의 경우는 국제개발 NGO 기구 설립을 통해 북한 및 해외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었다. 이외 특이한 사항으로는 명성교회가 사회복지관련 연구·출판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점, 지구촌교회와 분당우리교회가 사회복지프로그램 공모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점 등이다.

이들 10개 대형교회 복지사업은 박창우(2008: 183)의 적극-대형모형, 노치준(2000: 200-201)의 대형교회모형, 박종삼(2000: 30)의 모델 A 모형에 대체로 부합하는 형태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몇몇 교회에서 수행하는 연구나 프로그램 공모지원사업의 형태는, 초대형교회의 경우 개교회 차원의 복지사업을 넘어서서 다른 교회의 복지사업을 지원하고 보다 넓은 의미의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노치준(2000: 201)의 주장에 부합하는 사업들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대형교회가 수행하는 전체적인 복지사업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활동에 집중되어 있으며, 개교회 차원을 넘어서 중소형교회의 복지사업을 지원하거나 기독교 사회복지의 전반적 발전에 기여하는 내용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 III. 연구방법

#### 1. 연구 문제

본 연구는 한국교회 복지사업의 현실을 진단하고, 대형교회가 향후 한국교회 복지사업 발전을 위해 해야 할 바람직한 역할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으로 초점집단면접 참여

자들에게 제시된 구체적인 질문은 다음과 같다.

- 오늘날 한국교회 복지사역의 현실은 어떠한가?
- 대형교회는 한국교회 복지사역 발전을 위해 향후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가?

## 2. 연구 참여자 선정

본 연구의 초점집단면접 참여자는 교회 복지사역 혹은 기독교 사회복지의 다양한 영역에서 활약하는 전문가들 중 교회 복지사역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여 본 연구에서 제시된 질문에 구체적인 의견을 제공할 수 있는 자로 선정하고자 하였다. 관련 전문가들의 추천을 통하여 사회복지현장 전문가 5명과 사회복지학과 교수 2명 등 총 7명을 선정하였다. 현장 전문가들은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고 교회나 기독교 복지기관에서 10년 이상 실무를 담당하거나 책임자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고, 교수들은 기독교 사회복지에 전문성을 갖춘 연구자로서 기독교 사회복지 실천현장에서의 경험도 가지고 있었다. 연구 참여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특성은 다음의 <표2>와 같다.

<표2> 연구 참여자 특성

구분	성별	연령	전공	사회복지 관련 총 경력	현 소속기관 경력	소속기관	직책
참여자 1	남	50대	사회복지/신학	25년	3년	기독교 연합봉사단	사무총장 (목사)
참여자 2	여	40대	사회복지/교육학	14년	9년	기독교 복지재단 산하기관	관장
참여자 3	남	40대	사회복지	19년	3년 8개월	교회 복지재단	사무국장
참여자 4	남	40대	사회복지/신학	10년	6개월	교회	복지사역 부서 담당 목사
참여자 5	여	40대	사회복지	13년 8개월	1개월	교회 복지재단 산하기관	부장
참여자 6	남	40대	사회복지	20년	11년	기독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참여자 7	남	40대	사회복지/신학	12년	7년	신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목사)

### 3. 자료수집 및 분석

초점집단면접은 연구주제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참여자 6-8명으로 소집단을 구성하고 연구주제에 대한 집중적인 집단토론을 수행하는 과정을 통하여 참여자들의 경험과 생각을 심층적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연구방법이다(Morgan, 1998: 1).

연구자가 면접 참여자를 접촉하여 연구목적 및 내용에 대해 소개한 후 초점집단면접 참여에 대한 동의를 구했으며, 이후 이메일을 통하여 연구목적, 내용, 일정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보다 상세하게 공지하였다. 초점집단면접은 2010년 9월 11일 사랑의교회 접견실에서 수행되었으며, 전체 면접 일정에 약 2시간 30분이 소요되었다. 연구자 2명이 주진행자와 공동진행자로 면접을 진행하였고, 연구보조원 2명이 녹음과 기록을 담당하였다. 참여자들은 면접 장소에 도착하여 미리 준비된 일반적 사항 기록지를 작성하였고, 면접을 시작하면서 각자 자신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진행자가 면접 내용이 연구목적 외에는 사용되지 않을 것임을 설명하고 면접내용 녹음에 대한 참여자들의 동의를 구한 후 본격적인 토론을 진행하였다. 전체 면접내용을 녹음하고 필사하였다. 자료분석은 Corbin과 Strauss(2008: 73-77)가 제시한 지속적 비교(constant comparisons) 방법을 활용하여 이루어졌다. 필사된 자료를 반복하여 읽으면서 문장의 의미와 상호작용의 맥락을 고려하여 연구목적에 부합하는 의미있는 내용을 추출하여 코딩하였다. 코딩된 내용을 지속적으로 비교하면서 유사점과 상이점을 발견하고자 하였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개념을 구성하였다. 개념들을 다시 비교하면서 유사한 내용끼리 묶어서 범주를 구성하고, 이를 연구문제에 따른 영역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분석의 전 과정에서 2인의 연구자가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분석결과를 상호 비교하고 조율하였다.

## IV. 연구결과

초점집단면접 결과는 한국교회 복지사역의 현실, 대형교회 복지사역의 역할이라는 2개 영역에서 6개 범주, 13개 개념으로 분석되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표3>과 같다.

〈표3〉 초점집단면접 분석 결과

영역	범주	개념
한국교회 복지사역의 현실	맥락	① ‘믿음’만 강조하고 ‘행위’는 등한시하는 풍토가 복지사역 활성화를 저해함
		② 복지사역을 전도의 직접적인 수단으로 인식하고 활용함
	인식	① 복지사역에 대해 세속적으로 인식하고 접근함
		② 전문성이 부족함
		③ 공공복지 시스템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함
		④ 동기와 수행 과정에서 투명성이 결여됨
		⑤ 성도들의 사회봉사 및 기부 참여가 저조함
수준	① 연구·모델 개발 및 보급	
	② 정부 지원을 받지 않는 순수 민간 복지사역 수행	
	③ 중소기업교회 복지사역 지원	
대형교회 복지사역의 역할	토대 구축	①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헌신
		② 사회봉사 운동 및 복지 문화 확산
	교회에 대한 기여	① 미자립 교회 교역자 및 은퇴 교역자에 대한 지원
		② 중소형교회 복지사역 지원
	사회에 대한 기여	①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헌신
		② 사회봉사 운동 및 복지 문화 확산

### 1. 한국교회 복지사역의 현실

초점집단면접 자료를 분석한 결과, 참여자들이 한국교회 복지사역의 현실을 어떻게 진단하는가에 대해 ‘맥락’, ‘인식’, ‘수준’의 3개 범주에 대해서 총 7개 개념이 도출되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맥락

① ‘믿음’만 강조하고 ‘행위’는 등한시하는 풍토가 복지사역 활성화를 저해함

면접 참여자들은 한국교회에는 믿음을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신실한 믿음에 뒤따라야 하는 행위는 등한시하는 풍토가 있다고 하였다. 교회 지도자들이 “내적 영성”에 대해서만 가르치고 “실천적으로 사는 방법”은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고, 이러한 풍토에서 우리 사회의 기독교인들은 자신의 믿음을 삶에서 실천하려는 노력을 게을리 하게 된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참여자들은 한국교회 복지사역이 전반적으로 부진하다고 평가

하였는데, 바로 이러한 풍토가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복지사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도록 하는 기본적 맥락을 형성하고 있다고 보았다.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다, 자꾸 이렇게 하니까... 그런 설교도 많이 들었는데, 믿으면 된다, 이게 행위로만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리고 당연히 믿는다면 행동은 따라가 줘야하고 드러나야 된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부지불식간에 그 두 개를 대별해놓고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 다, 이런 식의 설교, 그러니까 행위가 자꾸 약화되는 것이 아니냐... (참여자 6)

내가 드러나지 않는 꾸준한 자원봉사는 잘 관심이 없어요. 무슨 말이나면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을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교회 안에서는 저도 목사지만 책임감... 교회는 내적 영성에 대해서만 말했지, 그것이 나타나는, 외적으로 나타나는 영성에 대해서는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중략) 기도 열심히 하고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그 신앙생활 잘한 거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은혜를 받고 내가 살지 않으면 그것은 그냥 내가 잊어버리잖아요. 주일날만 살아있으면 뭐해요? 평일 날에는 다 죽어있는데... 신앙과 상관없이 하는... 실천적으로 사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해야 하는데 그건 정말 교회가 정말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참여자 4)

## (2) 인식

### ① 복지사역을 전도의 직접적인 수단으로 인식하고 활용함

참여자들은 한국교회가 복지사역이 교회의 본질적 사명이며, 따라서 단순히 전도를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복지사역을 전도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고 하였다. 전도에 당장 도움이 되는지에 따라서 복지사역에 대한 참여 여부가 결정되는 경향이 있고, 복지사역이 교회의 단기적 성장을 위한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여겨지기도 한다는 것이다. 우리 사회는 교회의 이러한 모습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으며 교회가 순수하게 구제와 사회봉사에 헌신하는 경우에도 오해가 생길 수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하였다.

목사님들한테 여쭙보면 구제, 봉사, 이게 교회의 본질적 사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 동의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드러나는 것을 보면 복음 전도나 선교에 도움이 되냐 안 되냐, 이게 또 수단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인식은 우리가 본질이라고 인식이 되는데 결국은 수단으로 자꾸 인식이 되니까 이게 도움이 되면 하는 거고 안 되면 안 하는 거고 그것이 활동하는데 있어서 걸림돌이 많이 되는데... (참여자 6)

큰 교회 부목사들, 교구를 맡고 사역을 하는 입장에서는 제일 이슈가 되는 게 전도하고 선교

입니다. 교구를 맡게 되면 어떻게 하면 부흥을 할 것인가, 선교에 어떤 성과를 낼 것인가? 그래서 프로그램을 하면 모든 게 궁극적으로 그것에 포커스가 맞춰있습니다. 내용은 두 번째고 어떻게 하면 결과물을 낼 것인가? 솔직하게 서글픕니다. 그렇다보니 사회복지도 수단이 되는 것이예요. (참여자 4)

우리가 생각하는 순수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 라는 부분을 생각해봤는데 기본적으로 들리는 건 우리가 복지사역을 한다고 했을 때 순수하게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겠다는 것도 있지만 그 의미로 쓰이기에는 그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하고 하는, 선교라는 이미지를 너무 강하게 내포하고 있다는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그러다보니 외부 사람에게 비춰지는 모습들은 이것들이 선교의 한 방편으로, 전도의 한 방편으로 결국은 복지사역을 이용한다고 하는 인식이 바깥에서는 너무 광범위하게 그렇게 오해하고 받아들이고 실제로 보여지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그렇게 할 때는 선교와 전도에 직접적인 연결이 없다면 과연 거기에 돈을 투자하는 게, 우리가 헌신하는 게 가치가 있겠느냐 하는 이야기가 교회 내에서도 나오거든요. (참여자 3)

## ② 복지사역에 대해 세속적으로 인식하고 접근함

연구 참여자들은 한국교회가 복지사역에 대해 세속적으로 인식하고 접근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복지시설에 대한 교회의 소유권 문제나 정부의 통제 등을 이유로 복지사역 수행을 꺼리는 경우가 있고,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으려는 “경제논리”에 기초하여 복지사역을 수행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이는 기독교적 사명의식을 바탕으로 이웃 사랑을 베풀고 공동체에 헌신한다는 교회 복지사역의 본질에서 크게 벗어난 왜곡된 인식이라고 보았다.

사회복지사역에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꺼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위의 장로 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 자체는 정부의 간섭, 우리가 투자를 했을 때 정부가 가져가고 통제하는 데 왜 우리가 투자를 하고 더 많이 사업을 벌여야하는 이유가 있겠느냐? 그건 아니다, 어쩔 수 없이 벌여놓은 사업은 챙겨서 가지만 확장시키거나 늘리는 부분에서 만큼은 보류해야 한다. 그럼 결국은 정부 간섭이 심하고 우리 재산이 아니라 정부 재산인데 굳이 그렇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인식들이 있거든요. (중략) 이게 우리 재산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기본 잣대가 되고 정부에서 간섭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 투자해서 우리 것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해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참여자 3)

그런데 장로님들과 목사님들 생각이 뭐가 하면, 거기에 경제논리를 해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보려는 생각, 그것은 잘못된 거죠. 그것은 인식이 바뀌어야 하고... (참여자 4)

### (3) 수준

#### ① 성도들의 사회봉사 및 기부 참여가 저조함

초점집단면접에서는 한국교회 복지사역에 대한 다양한 평가가 이루어졌다. 먼저, 복지사역에 참여하는 수준에 있어서 성도들의 사회봉사나 기부에 대한 참여가 저조한 편이라고 평가하였다. 이는 기독교인들이 사회봉사나 기부에 적극적일 것이라는 일반적인 기대와는 다른 현실이다. 특히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의 활동이나 헌금에 대한 부담 때문에 교회 밖에서의 봉사나 기부는 소홀히 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고 보았다.

자원봉사에 대해서도 요즘에 전체 통계가 나오지 않습니까? 작년 2009년 통계를 보면, 종교인들이 많이 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분석을 해봤는데, 천주교가 제일 많이 하고, 그 다음 교회, 그 다음 불교인데 그런데 절대 시간과 정기적인 것은 천주교가 기독교의 두 배가 되는... (중략) 자원봉사의 부분도 많이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부분도 많고... (참여자 7)

교회 안에 자원들이 굉장히 많은데 실제로 자원봉사 수가 적은 걸 보면... 천주교 그런 분들은 많이 오시는데, 보통 보면 교회 분들은 연계를 하셨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실제로 교회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계시는 게, 예를 들면 교회는 언제든지 준비가 되어있다, 너희가 도움을 요청하면 언제든지라고 이야기하시지만 그건 사역자 분들의 생각이시고 교회 분들이 굉장히 바쁘시더라고요. 그것에 대한 중요성을... 왜냐하면 구역모임, 전도모임 등등 많으시고. 그리고 내야하는 헌금의 종류나 이런 게 많으시니까 본인은 다 많이 풀로 찼다고 생각하시고 사실 여력이 없으신 경우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참여자 5)

#### ② 전문성이 부족함

참여자들은 한국교회 복지사역이 전문성 측면에서도 크게 미흡한 수준이라고 진단하였다. 영세한 교회들이 부실하게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유명 교회에서도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 없이 복지사역에 뛰어드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사회적으로 교회에서 운영하는 복지시설은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인식이 형성되어서 교회가 복지시설을 위탁하는 과정에 부정적으로 작용한다고 보았다.

어떤 시설들 가운데는 유명한 교회에서 운영함에도 불구하고 시설장이 원래 선교사업을 하다가 이 일에 뛰어들었는데 마음과 열정이 있지만 아는 것이 없어서 실제로 제대로 하는 것이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발견이 됩니다. (중략) 이런 사업(지역아동센터)을 위시해서 많은 교회들이 하는 사업이 부실한 사업들이 많은데 그런 것은 주로 영세한 교회들이 하는 데가 많

습니다. (참여자 7)

복지관 위탁이 교회나 사단법인 쪽에서 주로 들어오는데 이러한 법인에게 맡겨도 되는가라고 할 정도로 형편이 없더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교회에서 위탁하려고 덤벼드는데 외부에서 봤을 때는 여기에 맡겨서 제대로 되겠느냐 하는 의구심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가지고 있더라. 역량은 그만큼 딸린다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참여자 3)

### ③ 공공복지 시스템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함

한국교회 복지사역의 또 다른 한계로 공공복지 시스템에 대한 이해 부족을 꼽았다. 국가의 제도적 틀 안에서 사회복지기관을 설립하고 운영해나가는 과정 전반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하여 여러 가지 부작용이 초래되고 있다는 것이다. 국가 예산을 지원받게 되더라도 교회 역시 재정적으로 꾸준히 기여해야 한다는 것을 모르고 복지사역에 뛰어들거나, 교단 등에서 설립한 법인의 명의를 빌려서 개교회가 기관을 운영하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등이 언급되었다.

대체적으로 제도적인 복지 쪽에 관계가 되면 이제는 정부가 해주는 거다, 복지재단을 만들어 놓으면 교회 돈이 안 나가는 줄 알았는데 교회 돈이 그러고 나서도 계속 자부담이라는 명목으로 나가니까 뭐 하러 이러냐, 그리고 재산 처리를 해보려고 하니깐 이것은 딱 묶여 가지고 재산대체가 아니면 안 되는 이런 부분이 있으니... (참여자 1)

실제로 기독교법인에서 운영하는 기관들이 원래의 취지와 다른 결과를 갖게 되는 경우들을 보면 법인의 이름을 빌려서 운영하는 경우에 그런 부작용들이 있었거든요. 법인 안에 계시는 분들이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할 때는 적법한 기준과 정책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가이드, 이해가 부족한 것 같아요. (참여자 5)

원래 재단이 위탁주체이기 때문에 위탁주체가 대외적으로나 내부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가는 것이 되도록 교회가 관여를 덜 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실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실질적으로 재정을 지원하는 개교회가 교회 이름을 걸어서 부정적인 인식을 주는 요소들이 많이 발견되거든요. (참여자 7)

### ④ 동기와 수행 과정에서 투명성이 결여됨

참여자들은 교회가 복지사역에 참여하는 동기나 복지사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투명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제도적인 복지를 등에 업어서 조금 쉽게 가려고” 하거나 “이거하면 자립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복지사역에 참여

하는 등 동기 자체가 순수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지침이나 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예산을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등 수행 과정에서의 투명성 부족도 언급되었다. 특히 지역아동센터 문제는 이미 사회적인 이슈로 대두되어서 정부가 문제해결에 나선 부끄러운 현실이라는 것이다.

공부방의 역사도 길고 하는데 선교적인 목적이나 제도적인 복지를 등에 업어서 조금 쉽게 가려고 하는 부분이 적지 않고, 대부분 미자립 교회들이 하다보니까 (중략) (지역아동센터의) 소위 시설장 겸직 문제, 성직자의 시설장 겸직 문제가 10월 1일부터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기독교측이 그렇게 모범적인 것이 아닌 것이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도 있었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많으니까 많은데 관리가 안 되니까 (중략) 복지부나 지방정부 관계자들은 대체로 작은 교회들이 부족한 예산을 지역아동센터 예산으로 쓴다는 인식이 큰데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풀어야 하나. (참여자 1)

이렇게 하니까 큰 교회는 어느 정도 틀이 있고 규모가 되니까 괜찮아요. 그런데 작은 교회들은 예산 부분에서 엉망진창이예요. 욕먹는 것은, 잘하는데 욕 안하잖아요, 문제 터트려서 전체가 욕먹는 것이예요. 작은 교회들은, 사회복지를 하고 있는 교회는 이거하면 자립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고 하니까 그게 궁극적인 목적이예요. (참여자 4)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면 되지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이라는 것이 적법한 근거에 기준해야하는데 이러한 부분에서의 중요성을 생각보다 낮게 평가하시는 거 같아요. 실제로는 하나님 앞에서의 순수와 정직이지만, 기준에 의거해서 봤을 땐 정부지침에는 정직하지 않은 결과들이 앞에서 했던 선한 의도들을 퇴색해보이게 하고 부정적이게 되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어요. (참여자 5)

## 2. 대형교회 복지사역의 역할

초점집단면접 자료를 분석한 결과, 상기한 바와 같은 한국교회 복지사역의 현실에서 대형교회가 한국교회 복지사역 발전을 위하여 감당해야 할 역할로 ‘토대 구축’, ‘교회에 대한 기여’, ‘사회에 대한 기여’의 3개 범주에 대해서 총 6개 개념이 도출되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토대 구축

#### ① 연구·모델 개발 및 보급

면접 참여자들은 향후 대형교회 복지사업이 나아갈 방향으로 먼저 교회 복지사업 혹은 기독교사회복지에 대해 연구하고 모델을 개발하여 복지사업의 토대를 구축하는데 기여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교회 자체적으로도 다양한 지침이 필요한 실정이고, 특히 공공복지 영역에서 섬기는 교회와 기독교 단체들은 구체적인 실천방법에 대해 상당한 혼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심층적인 연구를 통하여 기독교 사회복지의 정체성을 명료화하고, 다양한 교회 복지사업 및 기독교 사회복지실천 모델을 개발하여 보급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소형교회, 중형교회, 대형교회, 각각의 교회 규모별로 할 수 있는 역할이나 내용들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나 가이드 등 (중략) 이런 부분에 대한 가이드를 제시하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절실했어요. (참여자 5)

기독교 사회복지 실천에 대한 제대로 된 모습들을 보여주면 좋겠다, 근데 그건 굉장한 많은 스테디나 연구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참여자 6)

그런데 (기독교 사회복지기관의) 그 직원들이 정말 내가 크리스천 리더로서 일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저 역시 의문이 들거든요. 아마 저희와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중략) 그런데 여전히 절대적인 사회복지적인 측면에서는 너무 부족해요.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누군가는 그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참여자 2)

목회자 말고, 복지계 현장에 책임적 리더들을 모아서 기독교적인 사회복지 아이덴티티란 이런 것이다. 우리가 나갈 방향성은 이래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우리가 함께 지역에서 연대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내용의 교육을 일정 정도 해야지 않겠나... (중략) 제도적인 복지와 교회가 만나서 어떻게 하면 좋은 사례를 만들어 낼 수 있는지, 만일 그런 기관들을 운영하고 있다면 그런 모델들을 만들고 그런 매뉴얼을 만들어봐 주시면 교회들이 다양한 고민들을 하고 있는 부분들..." (참여자 1)

## ② 정부 지원을 받지 않는 순수 민간 복지사업 수행

참여자들은 대형교회가 정부의 예산 지원을 받지 않는 순수한 민간 복지라는 새로운 사업 형태를 시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의견은 두 가지 다른 맥락에서 나왔는데, 그중 하나는 투명성과 관련된다. 재정적 능력이 있는 대형교회라면 예산을 전액 부담하면서 보다 순수하고 적극적으로 사회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사업 형태를 다양화하여 토대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며, 동시에 기독교 사회복지실천 연구 및 모델 개발 필요성 논의와도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을 경우 공공복지의 성격을 띠어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으므로, 기독교 사회복지실천의 구체적인 모습과 방법을 실행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정부 지원을 받지 않는 형태의 교회 복지사업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가능하면 정부 지원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에요? 같이 덕 보자는 이야기에요. 솔직히 이야기하면.... (참여자 4)

우리나라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이 국가 사회복지나 마찬가지로요. 대개 민간 사회복지시설이라고는 하지만 국가지원을 받으면 국가통제를 받고, 국가가 추구하는 성격을 대개 기준을 맞춰서 나가기 때문에, 저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여러 가지 형태를 하는데 국가복지 체계 속에 들어와서 국가의 재정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활용해서 하는 부분도 필요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렇지 않고 순수하게, 정말 민간으로서 사회복지실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다양하게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중략) 일반 국가기관, 사회복지기관에서는 그런 시도(영성에 접근하는 사회복지실천)를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순수하게 자부담으로 하면 그건 우리가 돈을 내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사회복지실천을 하는데 있어서도 영성을 베이스로 하는 사회복지실천, 그런 모델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국가기관이나 이런 부분들은 안 받는 방향으로 하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고. (참여자 6)

## (2) 교회에 대한 기여

### ① 미자립 교회 교역자 및 은퇴 교역자에 대한 지원

면접 참여자들은 대형교회가 일반 사회에 대한 섬김 뿐 아니라 교회 내부에 대한 돌봄에 있어서도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하였다. 특히 미자립 교회 교역자와 극빈층 은퇴 교역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하였다. 미자립 교회 교역자들이 “권위나 존엄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은퇴한 교역자들이 “비참하게” 살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서 대형교회가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동시에, 이러한 노력은 지역아동센터 문제 등에 대한 현실적인 대처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그 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시지만 은퇴하시고 어떻게 될 것인가, 은퇴하시고 소천하실 때까지 고귀하게 사셔야지 이게 보통 사람들이 볼 때 은혜롭고 기독교가 정말 진실된 종교구나 이렇게 될텐데, 많은 분들이 비참하게 살고, 저는 그런 부분에서 보면 우리 내에서도 다독이지 못하면서 뭘 밖을 한다는 것인가,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중략) 저는 바람이 정말 미자립 교회에서 어렵게 목회하시는 분들에게 최소한의 생활은 가능할 수 있게 하는데, 우선 큰

교회가 더 초점을 두어서 이걸 구제라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분들이 정말 생계의 고민이나 그런 것들은 벗어나서 목회자로서의 권위나 존엄성을 가지고 하도록 하는 것, 그것도 역시 대형교회의 역할로 자리매김을 해줬으면 좋겠다. (참여자 6)

지역아동센터의 문제가 결국은 열악한 조건에서 와지는 것이고 그것을 복지로 적절하게 덧씌워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원천적으로 그런 부분의 원인을 대처해보는 미자립 교회의 목회자들, 이 분들의 경우는 어찌되었든 먹고 살아야 하니까, 복음 전과 이전에 지금 당장 생존에 문제가 있으니 목회자의 생존이 어렵습니다. 대리운전으로 먹고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리운전이다, 당장 생존의 문제 때문에 일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대한 제도적인 지원의 부분들... (참여자 1)

## ② 중소형교회 복지사업 지원

교회에 대한 기여의 또 다른 형태로 대형교회가 중소형교회의 복지사업을 다각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대형교회가 중소형교회에 바람직한 복지사업 모델을 제시하고, 재정 및 전문성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전반적인 교회 복지사업 활성화에 기여하면서, 동시에 일부 영세한 교회의 부실한 복지사업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복지사업의 경험이 풍부한 대형교회가 중소형교회들이 그런 복지사업을 할 때 어떤 모습으로 할 수 있는지 또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그런 모델을 제시해주는 것, 실제로 할 수 있도록 뒤에서 뒷받침해주고 제시해 줄 수 있다면 복지라는 것들이 스프레드되서 좋은 역할이 되지 않을까. 일반 시민들 대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큰 교회 같은 경우는 중소형교회들에 대한 역할이 필요하다고 인식이 되고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참여자 6)

그러면 이것들을 과연 이대로 둘 것인가? 물론 바라기는 정부나 지자체가 좀 더 예산을 늘려 가지고 도와주면 좋겠지만 그런 상황이 쉽게 안 만들어지는데, 이미 시작한 것을 어쩔 수가 없는 상황에서 조금 나은 교회들이 재정적으로도 도와주고, 훈련 프로그램 같은 것을 운영해서... (참여자 7)

## (3) 사회에 대한 기여

### ①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헌신

면접 참여자들은 대형교회가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사회적으로 더 크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기여할 것을 촉구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방법의 하나로 복지 사각지대를 찾아서 헌신할 것을 제시하였다. “복지 사각지대” 또는 “틈새 사업”, 즉 정부나 다

른 민간에서 아직 손대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는 분야를 찾아서 그 분야에 집중적으로 기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재정적·인적 자원이 풍부한 대형교회라면 해당 분야에서 구체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남들이 다 하는 건 안 되고, 정부에서 이미 추진하는 부분도 안 되고, 결국은 정부도 안하고 일반 사회복지법인에서도 하지 않는 그 중간에 있는 틈새 사업들을 해야 하는데 그 사업들이 결국은 대형교회에서 할 수 밖에 없는 몫이다. (참여자 3)

문제가 되는 시설이나 어디도 손대지 못하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하면 오히려 그런 곳을 리모델링을 하고 새롭게 뭔가를 바꿔내는 그런. 굳이 얘기한다면 지역 차원에서는 복지 사각지대를 찾아내는 것. (참여자 1)

## ② 사회봉사 운동 및 복지 문화 확산

참여자들은 사회봉사 운동을 벌이고 “복지를 문화 차원에서 확산”시켜 나가는 것이 대형교회가 우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라고 하였다. 대형교회가 수많은 성도들에게 사회봉사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이들이 실제로 사회봉사에 참여하도록 격려한다면 사회 전체에 그 효과가 파급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우리 사회의 사회봉사 및 복지 문화가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무슨 운동이나 다른 건 많이 하는데 오히려 자원봉사 몇 만 시간 달성, 이런 것을 교회 차원에서, 이런 것을 문화 차원, 교회 문화 차원에서 하면 좋을 듯하고요. (중략) 인식개선 운동 같은 부분의 아쉬움이 있지요. (참여자 5)

그런 삶을 문화 차원에서, 복지를 문화 차원에서 확산시키고 우리의 몸에 배게 만드는 그런 것도 하나의 중요한 모습이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여자 6)

이로써 본 초점집단면접을 통하여 그동안 알려진 한국교회 복지사역의 문제점들이 재확인되었을 뿐 아니라 기존에 언급되었던 것보다도 더 심각한 현실이 구체적으로 드러났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대형교회의 발전적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고 시급하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 특히 본 초점집단면접 참여자들은 오늘날 한국교회 복지사역의 열악한 실정으로 인해, 대형교회들이 지금까지와 같이 개교회 차원에서 복지사역을

수행하는 수준에서 조속히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대형교회가 한국교회 전체의 복지사업 발전을 위해 토대를 강화하고 타 교회 및 사회 전반에 보다 적극적으로 기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 것이다.

## V. 결론

본 연구는 한국교회 복지사업의 현실을 진단하고, 대형교회가 향후 한국교회 복지사업 발전을 위해 해야 할 바람직한 역할을 모색하고자 이루어졌다. 이러한 연구목적 을 달성하고자 한국교회 복지사업의 전반적 현황 및 대형교회 복지사업의 특성을 살펴보고, 대표적인 대형교회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대형교회 복지사업의 현황을 파악하였다. 또한 교회 복지사업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초점집단면접을 실시하여 한국교회 복지사업의 현실과 대형교회의 발전적 역할에 대하여 토론하고 그 내용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한국교회 복지사업의 현실’ 영역에서 ‘맥락’, ‘인식’, ‘수준’의 3개 범주, 총 7개 개념이 도출되었고, ‘대형교회 복지사업의 역할’ 영역에서 ‘토대 구축’, ‘교회에 대한 기여’, ‘사회에 대한 기여’의 3개 범주, 총 6개 개념이 도출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대형교회 복지사업의 발전적 역할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의 초점집단면접 결과를 통하여, 한국교회는 복지사업을 전도의 직접적인 수단으로 인식하고, 봉사나 구제에 대한 성도들의 실질적인 참여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며,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등의 문제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음이 드러났다. 더욱이 교회가 복지사업에 경제적 논리를 가지고 접근하는 경향이 있고, 많은 교회와 기독교 단체가 공공복지 영역에서 사역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스템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일부 교회의 경우에는 복지사업 참여 동기나 수행 과정에서의 투명성이 의심스러운 것이 오늘날 한국교회 복지사업의 현실이라는 것이다. 본 면접 참여자들은 이러한 상황의 기저에 ‘믿음’만 강조하고 ‘행위’는 등한시하는 한국교회의 풍토가 깔려있다고 진단하였는데, 사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흔한 기독교인에 대한 비난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바로 “주일날만 살아있고 평일 날에는 다 죽어있는” 한국교회에 대한 비난이며,

이러한 불균형 및 불일치가 복지사역에서도 인식과 실제 간의 괴리나 투명성 문제 등을 초래한 원인이라고 하겠다. 또한 교회의 성장세가 멈추었을 뿐 아니라 급기야 전체 교인 수가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수많은 교회들이 존립 자체를 위협받는 지경에 이른 한국교회의 구조적 한계 역시 이러한 문제를 가중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형교회는 스스로의 복지사역을 돌아보고 혁신시켜나감과 동시에 한국교회 전체의 복지사역을 이끌어 가야한다는 책무성을 더욱 분명하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본 초점집단면접에서는 대형교회가 한국교회 복지사역 발전을 위해 감당해야 할 역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데, 그 첫 번째는 복지사역의 기본 토대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에는 심층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실천모델을 개발하여 보급하는 것과 교회가 예산을 전액 부담하는 온전한 민간 복지사역을 수행하여 교회 복지사역의 유형을 다양화하는 것이 포함된다. 즉 교회 복지사역의 전문성 향상 및 순수성 강화에 대한 것이다. 우리나라 교회의 복지사역은 크게 두 유형으로 구분되는데, 하나는 교회 내 담당 부서에서 교회 예산을 활용하여 교회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복지 재단을 설립하고 국가 예산을 지원받아서 복지기관 중심으로 활동하는 것이다. 대다수 대형교회들은 이러한 두 가지 형태를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사역 역량에 있어서 두 유형이 각기 나름의 고민과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교회 중심 복지사역은 그 내용과 방법이 초창기와 크게 다를 바 없는 낙후된 수준으로 전문성 부족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반면에 기관 중심 복지사역은 일반 사회 복지 실천과 차별화되는 방법론을 정립하지 못한 채 정체성의 혼란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복지사역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대형교회가 복지사역에 대한 전문적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부서나 기관을 개교회 차원에서 마련하거나 혹은 교회들의 연합 형태로 연구기관을 설립함으로써 연구 영역에 기여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기관에서는 이론 구축, 실천모델 및 매뉴얼 개발, 중소형교회의 복지사역에 대한 평가 및 자문, 교회 사회봉사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교회 복지사역 및 기독교 사회복지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대형교회의 순수 민간 복지사역과 관련하여, 대다수 대형교회들이 교회 내에 전담부서를 두고 교회 중심 복지사역을 수행하고 있고, 또 일부 교회는 법인 직접사업

을 하고 있으므로 이미 순수 민간 복지사업이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본 초점집단면접에서 언급된 바로 볼 때 전문가들조차 그렇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주된 이유는 아마도 교회 중심 복지사업의 전문성이 부족하고, 일부 교회가 수행하는 법인 직접사업은 그 대상과 내용이 제한적이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재정이 확보된 대형교회부터 교회 내에 사회복지전문가를 적극적으로 영입하는 등 전문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순수 민간 복지사업을 확대해나감으로써 기독교 사회복지실천을 실천할 수 있는 장을 다양화하고 교회 복지사업의 순수성을 강화해나가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독일교회의 디아코니아는 유익한 함의를 제공한다고 하겠다. 독일교회는 일찍이 1975년에 독일교회 디아코니아 협회(Diakonisches Werk der Evangelischen Kirche in Deutschland)를 조직하여 체계화된 복지사업을 전개해오고 있다. 디아코니아 활동을 위해서는 반드시 실천신학 및 사회복지실천에 대한 전문 교육을 받도록 하여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특징적이다. 또한 국가 주도의 제도적 복지가 매우 발달한 상황에서 교회가 국가와 강한 연계성을 가짐과 동시에 예방적 차원이나 통독 및 유럽연합 이후 발생한 복지적 위기에 대해서는 교회 자체적으로 적극 지원하고 있는데, 주로 디아코니아 협회에서 분배하는 예산과 개인 후원금 등을 활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강영실, 2005: 286, 295-296, 301).

초점집단면접에서는 대형교회가 한국교회 복지사업 발전을 위해 기여해야 할 또 다른 내용으로 한국교회 전체, 특히 소형교회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제시되었다. 두 가지 구체적인 방안이 언급되었는데, 그중 하나는 대형교회가 미자립 교회 교역자나 은퇴 교역자들이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이는 자칫 교회의 내부적 필요를 우선적으로 채우려는 시도로 이해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가난을 무릅쓰고 자기를 희생한 교역자를 돕는 것은 교회공동체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몫이라고 하겠다. 교회가 지원하지 않는다면 결국 국가의 복지제도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를 단순히 교회 내부의 문제라고 할 수도 없을 것이다. 다만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대상을 선별할 수 있는 기준과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하겠다.

다른 하나는 대형교회가 중소형교회의 복지사업을 지원하는 것이다. 대형교회는 개교회의 입장에서 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한국교회 전체의 복지사업 발

전을 위해서 헌신하고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일부 영세한 교회에서 수행하는 복지사역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므로 지원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이에 재정적 지원 뿐 아니라 인적 자원에 대한 지원과 교육·훈련프로그램 등을 통한 복지사역의 모델이나 노하우와 같은 방법론에 대한 지원도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따라서 대형교회가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재정을 마련하는 것 외에도 효과적인 지원 사역을 기획하고 적절한 대상을 선정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전문인력과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타 교회의 복지사역을 지원하는 일은 단순히 해당 교회들을 돕는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의 복지사역 방향에 영향을 미치고 그 지형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일이다. 예컨대 과거 삼성복지재단은 대규모 지원을 통하여 우리나라에서 학교사회복지가 현재와 같이 발전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바 있다. 따라서 대형교회는 이러한 사역을 위하여 숙고하고 철저히 준비하여 방향성을 제시하면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초점집단면접에서는 대형교회가 단순히 교회복지사역 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복지 발전을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기여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의 복지 발전을 주도해 온 기독교와 교회가 앞으로도 그러한 역할을 지속해야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대형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우선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여 헌신할 것이 제시되었다. 대형교회, 특히 초대형교회라면 이미 다수가 참여하고 있는 분야보다는 방치된 “틈새”를 찾고, 집중적으로 그 틈새를 채우고자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여러 분야에 걸쳐서 백화점식으로 복지 사역을 벌이고 그 방식에 있어서도 중소형교회나 다른 민간단체들과 크게 차별화되지 않는 오늘날 대형교회 복지사역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의 새들백(Saddleback)교회는 한국의 대형교회들과는 다른 좋은 사례를 보여준다고 하겠다. 새들백교회에서는 2004년부터 피스 플랜(PEACE Plan)이라는 복음적 인도주의 사회봉사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는데, 그 핵심 프로그램이 에이즈 퇴치 운동이다. 교회에서 매년 HIV 컨퍼런스를 개최하는 등 미국 내에서 대표적인 에이즈 관련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아프리카, 아시아, 남미 등 제3세계 국가들에서 에이즈 예방교육, 감염자 치료, 위생 개선 등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크리스천투데이, 2011. 7. 6.).

또한 대형교회가 사회적으로 기여할 방안으로 사회봉사 운동 등을 통하여 복지를

우리 사회의 문화 차원에서 확산시켜나가는 것이 제안되었다. 성도들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봉사하고 구제에 참여하도록 이끌고, 이러한 삶의 모습이 사회 전반으로 퍼져나갈수록 하는 것은 교회 복지지역의 매우 중요한 의의 중 하나이다. 성도들의 사회봉사 및 구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안이 시도될 수 있는데 예컨대, 설교를 통하여 신앙을 실천하는 삶, 특히 어려운 이웃에 대한 섬김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어야 하고, 교회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평신도 교육·훈련과정에서도 사회봉사와 구제에 대한 비중이 크게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교육·훈련과정에 사회봉사의 실재를 경험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다면 사회봉사의 중요성 인식 및 참여율 향상에 매우 효과적일 것이다. 이와 더불어 교회가 수행하는 다양한 복지지역에 대해서 교인들에게 널리 알리고 홍보하는 노력도 따라야 한다. 또한 봉사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인적 자원 데이터베이스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대형교회는 성도 수가 많고, 특히 다양한 전문분야에 종사하는 잠재적 전문봉사 인력이 많지만 이러한 인력이 적절하게 활용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전산시스템을 활용한 사회봉사 인적 자원 데이터베이스를 마련하여 사회봉사 인력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겠다. 이러한 사회봉사에 대한 성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우리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미치기 위해서는 교계의 연합이 필요하겠다. 2007년 태안 기름유출 사고현장 봉사에 많은 교회들이 연합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것은 이에 대한 좋은 선례로 볼 수 있다. 교회가 효과적으로 사회봉사 운동을 전개하고 우리 사회의 복지 문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태안 봉사에서와 같이 교계가 연합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하겠으며, 그 과정에서 대형교회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 참고문헌

- 강영실 (2005). “독일교회의 사회사업참여에 관한 역사적 배경과 실천적 사례”. 『교회사회사업』3. 279-307.
- 강춘근 (2004). “기독교 사회복지학을 어떻게 할 것인가?”. 『신앙과 학문』 9(1). 41-85.
- 강춘근 (2005). “기독교 사회복지의 가치와 윤리에 대한 소고”. 『신앙과 학문』 10(1). 9-49.
- 고경환 (2006). “한국종교계의 사회복지시설 지원금 실태분석”. 『보건복지포럼』 115. 65-73.
- 기독교윤리실천운동 (2010). 『2009년 한국교회의 사회적 점검 보고서』. 서울: 기독교윤리실천운동/교회신평회복네트워크.
- 김기원 (2003). “탈세속화와 기독교사회복지 활성화방안”. 『교회사회사업』 1. 65-114.
- 김미숙 · 홍석표 · 이만식 · 유장춘 (1999). 『종교계의 사회복지활동 현황과 활성화 방안 연구-교회의 사회복지활동을 중심으로-』.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수정 (2004). “기독교 신학생들의 교회사회복지에 대한 인식 및 지원욕구-영남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신학과목회』22. 289-315.
- 김지찬 (2007). “구약 성서에서의 사회복지.” 한국기독교사회복지협의회 편. 『한국기독교사회복지총람』. 서울: 한국기독교사회복지협의회. 25-38.
- 김정호 (2001). “교회와 지역사회의 복지협력체계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연구-서울특별시 강남구 교회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강남대학교.
- 김희수 · 양혜원 (2008). “기독교 사회복지사의 실천 경험에 대한 탐색적 연구”. 『신앙과학문』 13(3). 115-164.
- 노치준 (2000). “제5장: 사회복지를 향한 개신교의 사회봉사”. 『한국사회발전과 기독교의 역할-기독교와 한국사회 7』 160-205.
- 문화규 (2007). “한국교회의 생명목회와 지역사회봉사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일장신대학교.
- 문화체육관광부 (2009). 『2008 한국의 종교현황』.
- 박중삼 (2000). 『교회사회봉사 이해와 실천』. 서울: 인간과복지.
- 박중삼 외 (2002). 『사회복지학개론』. 서울: 학지사.
- 박창우 (2007). “교회사회복지활동 결정요인에 따른 실천모형 개발-생태체계이론에 근거하여”. 박사학위논문. 백석대학교.
- 박창우 (2008). “교회사회복지활동 결정요인에 따른 실천모형 개발”. 『신앙과 학문』 13(2). 157-188.
- 서우석 (1994). “중산층 대형교회에 관한 사회학적 연구”. 『한국사회학』 28. 151-174.
- 손병덕 (2004). “칼빈의 개혁주의 사회복지 실천과 현대 기독교 사회복지의 과제”. 『신학지남』 70(4). 159-172.
- 손병덕 (2010). “기독교 사회복지,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 목회와신학 편집부 편. 『기독교와 사회봉사 총론』. 서울: 두란노아카데미. pp. 107-117.
- 양혜원 (2008). “기독교사회복지의 개념과 실천모델에 대한 기초연구”. 『충신대논총』 28. 147-171.

- 이만식 (2007). “한국 기독교사회복지의 실태”. 한국기독교사회복지협의회 편. 『한국기독교사회복지총람』. 서울: 한국기독교사회복지협의회. pp. 787-828.
- 이상성 (2009). “소망 없는 소망의 교회-대형교회의 성장과 문제점”. 『역사비평』 89. 174-207.
- 이상직 (1996). “이 시대의 대형교회가 갖는 의미와 그 기능”. 『활천』 508. 14-20.
- 이향순 · 이광순 (2002). “도시구조의 변동과 대형교회의 성장”. 『선교와 신학』 10. 41-72.
- 전광현 외 (2005). 『기독교사회복지의 이해』. 서울: 양서원.
- 최완석 (2004). “사회봉사적 교회론 정립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일장신대학교.
- 한국자원봉사능력개발연구회 (1990). 『한국교회 사회봉사사업 조사연구서』. 서울: 성광문화사.
- 홍영기 (2002). 『한국 초대형교회와 카리스마 리더십』. 서울: 교회성장연구소.
- Corbin, J. and Strauss, A. C. (2008).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CA: Sage Publication, Inc.
- Lindner, E. W. (2000). *Yearbook of American and Canadian Churches 2000: Religious Pluralism in the New Millennium 68th Edition*. NY: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 Modesto, K. F., Weaver, A. J. and Flannelly, K. J. (2006). “A Systematic Review of Religious and Spiritual Research in Social Work,” *Social Work & Christianity*, 33(1), 77-89.
- Morgan, D. L. (1998). *The Focus Group Guidebook*. CA: Sage Publication, Inc.
- 국민일보 쿠키뉴스 (2008. 12. 9.). “5만 교회 현주소 GIS 분석” 2008. 12. 9. <http://cafe.daum.net/gigu9125/FGMx/89?docid=19oSolFGMx|89|20100221000510&q=5%B8%B8%B1%B3%C8%B8%20%C7%F6%C1%D6%BC%D2>
- 크리스천투데이 (2010. 12. 14.). “미 대형교회들, 경제난 속에서도 계속 성장” 2010. 12. 14. <http://www.christiantoday.co.kr/view.htm?id=243185>
- 크리스천투데이 (2011. 7. 6.). “릭 워렌 ‘교회는 에이즈에 맞설 가장 큰 무기’” 2011. 7. 6. <http://www.christiantoday.co.kr/view.htm?id=248159>
- 한국기독교공보 (2010. 5. 26.). “대형교회만 지향하는 한국교회” 2010. 5. 26. <http://www.pckworld.com/news/articleView.html?idxno=49904>

## ABSTRACT

### Korean Megachurches' Current Status of and Future Role in Social Work Services

Hae-Won Yang(Chongshin University)

Hee-Soo Kim(Korea Bible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current status of social work services in Korean churches and to grope the roles of megachurches to develop Korean churches' social work services. The current status of social work services in Korean churches were examined through literature review. The features of megachurches' social work services were explored through previous literature and websites of ten representative megachurches. A focus group interview with 7 professionals was conducted and analysed. As the result, 7 concepts from 3 categories such as 'context', 'perception', and 'level' in the area of 'the reality of social work services in Korean churches', 6 concepts from 3 categories such as 'foundation building', 'contributions to churches', and 'contributions to society' in the area of 'the role of megachurches in social work services'. Based on the results, discussions regarding megachurches' future role to develop Korean Churches' social work services were made.

Key Words: megachurches, church social work services, current status of church social work services, megachurches' role in social work services, focus group interview

